



'기억'을 가져 오는 묵주기도

임찬민

■ 학습목표

- 묵주기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 묵주기도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

■ 준비물

- 영화 <일 포스티노> DVD(감독/마이클 래드포드, 출연/필립 느와레 · 마시모 트로이시 외)
- DVD 플레이어와 TV 또는 DVD를 재생할 수 있는 컴퓨터
- 활동지와 필기도구(학생 수에 맞게 준비한다.)

※ 활동지는 디다케 홈페이지(<http://didache.eduseoul.or.kr>→자료방→디다케 자료방)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들어가는 말(교안을 사용하는 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 본 교안은 초등부 고학년(4·6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 라는 말이 있듯이, 아는 것을 내면으로 신념화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신앙인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가슴으로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머리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항상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목주기도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 우리를 영적인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목주기도의 소중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교리 시간, 영화 속 마리오와 네루다의 우정을 매개로 목주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기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잊지 않고 저희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교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도입 (문제 발견)

인사	우리 친구들, 방학 동안 잘 지냈나요?
수 으로 이끌기	여러분은 방학 동안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몇 가지나 기억할 수 있나요? 만약 여러분 마음대로 기억을 저장하고, 버릴 수 있다면 꼭 간직하고 싶은 기억과 지워 버리고 싶은 기억은 무엇인가요?
영화 소개 (일 포스터노)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영화에는 오랜 시간 헤어져 있었지만 서로의 기억을 통해 다시 만나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그들은 왜 직접 만나지 못하고 기억을 통해서 만나야만 했을까요? 무척 궁금하지 않나요? 지금부터 그 까닭을 알아보기로 해요.

전개 (생각하기)

영화를 보기 전에
이탈리아의 작은 섬 마을, '마리오' 는 어부인 아버지와 무료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한 이 마을에 천재 시인 '네루다' 가 들어옵니다. 네루다는 위대한 시인이자 사회주의자인데 정치적 이유로 해외 망명길에 오르게 되면서 이 작은 섬 마을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 영화 보기 1 (네루다와의 첫 만남, chapter2, 07:00~12:00)

작은 섬 마을의 우체국은 네루다에게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우편물을 감당하지 못해, 임시 우편배달부를 모집합니다. 마리오는 네루다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 생각 나누기 1

- 마리오는 네루다를 어떤 시인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 여러 가지 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마리오가 우편배달을 하고 싶었던 까닭은 무엇인가요?
- 마리오는 왜 모자를 계속 쓰고 있었나요?
- 길들여지는 것(익숙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다음 이야기 소개

전 세계 여성들에게서 오는 수많은 팬레터를 본 마리오는 네루다를 부러워하며, 그와 친해지기 위해 애씁니다. 네루다의 시집을 읽기도 하고, 시에 대해 고민하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 영화 보기2(시를 쓰고 싶은 마리오, chapter2, 25:00~27:36)

마리오는 네루다에게 시인이 되고 싶은 심정을 고백하며, 어떻게 하면 시를 쓸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네루다는 해변을 거닐며 감상해 보라고 대답해 줍니다.



♣ 생각 나누기2

- 마리오는 왜 네루다가 분명히 상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을까요?
- 시인이 되고 싶어 하는 마리오에게 네루다는 배달부가 더 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한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선생님들께 ☞ 아이들이 추론하기 어려워한다면, 네루다는 이미 경험을 통해 시를 쓰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해 주세요.
- 시를 쓰고 싶다는 마리오에게 네루다는 왜 해변을 거닐며 주변을 감상해 보라고 말했을까요?
- 여러분은 해변을 거닐며 풍경을 감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 다음 이야기 소개

시의 세계 속으로 빠져드는 마리오에게 운명적인 사랑이 찾아옵니다. 아름다운 베아트리체에게 첫눈에 반해 버린 것입니다. 마리오네 네루다에게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시를 써 달라며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 영화 보기3(네루다가 기억하고 있는 것, chapter4, 42:09~46:37)

네루다는 마리오에게 시를 쓸 수 있는 공책 한 권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시를 쓰게 되었는지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 생각 나누기3

- 네루다가 인간의 투쟁에 관한 시를 쓰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이 네루다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가요? 그 까닭은 무엇인가요?
- 기억을 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 다음 이야기 소개

네루다와의 우정을 통해 시의 아름다움에 눈뜬 마리오. 베아트리체 또한 그런 마리오를 사랑하게 되고, 마침내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됩니다. 한편 네루다는 정치적 문제가 잘 해결되어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마리오는 네루다를 무척 그리워하지만, 그렇게 떠난 이후로 네루다는 아무런 연락도 보내지 않습니다.



◆ 영화 보기4(마리오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chapter6~7, 01:26:20~01:38:30)

그러던 어느 날, 마리오에게 반가운 편지가 날아옵니다. 드디어 네루다의 편지가 온 것입니다. 마리오와 가족들은 기대에 부풀어 편지를 열어 보지만 내용을 보고서 이내 실망하고 맙니다. 짐을 정리하기 위해 쓸쓸히 네루다의 집을 다시 찾은 마리오는 네루다와 함께했던 지난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네루다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하기로 합니다.



♣ 생각 나누기4

- 편지를 읽고 난 후 마리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 마리오는 네루다가 자신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 가족들의 말처럼 네루다는 정말 마리오를 잊어버린 걸까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 네루다의 집을 다시 찾은 마리오의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마리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것은 좋은 일인가요? 그 까닭은 무엇인가요?

♣ 다음 이야기 소개

다시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마리오의 아들이 태어났고 이제 소년이 되었습니다.

◆ 영화 보기5(기억 속에서 만난 마리오, chapter7~8, 01:40:10~01:42:30)

그토록 기다리던 네루다가 마리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통해 마리오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심화(해결 방법 찾기)

마리오와 네루다는 다시 만났을까?	마리오와 네루다 두 사람은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어요. 마리오는 자신이 쓴 네루다에게 바치는 시를 시위가 있는 연단에서 발표하려고 했지만 불행히도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이 영영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서로의 기억 속에서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기억의 중요성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리오와 네루다처럼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와 이별해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요. 하지만 몸이 헤어져 있다고 해서 꼭 마음까지 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기억은 중요한 것이에요.
목주기도-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	우리 친구들은 마리오가 네루다를 기억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생활하나요? 그래요, 항상 기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기도는 잊고 있었던 예수님의 삶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어요. 특히 목주기도는 예수님의 거의 모든 생애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신앙인의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의 삶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 주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정리 및 다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경우 그 사람의 사진을 들춰 보기도 하고, 그 사람과 같이 걸었던 길을 걷기도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위안을 받지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기억을 되살려 주는 매개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책인 복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바치는 묵주기도도 그중 하나예요. 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영화처럼 자세히 보여 주는 것이라면, 묵주기도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중요한 장면을 사진으로 남겨 놓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는 작은 포켓 사진처럼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묵주기도를 더 자주 바치면 바칠수록 예수님에 대한 기억은 더 생생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욱더 커질 거예요. 어때요? 묵주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한 기억을 되살릴 수 있다니 신기하지 않나요?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이에요. 묵주기도 성월을 맞아 우리 모두 성모님과 함께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져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더욱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한 주 되고, 다음 교리 시간에 다시 만나요.

마무리(실천해 보기)

활동지를 작성한 후 발표한다.(활동지는 디다케 홈페이지(<http://didache.eduseoul.or.kr>→디다케 자료방)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침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에게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오늘 교리 시간에 배운 것을 기억하며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임찬민_엘리사벳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방배4동 성당 초등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했다.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독서교육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독서지도연구회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